



Market Index / 21일

코스피지수 ▼	2328.95 -4.34	코스닥지수 ▲	705.70 +2.57	유가(WTI, 달러) ▲	76.23 +0.85	환율(원)	1USD 100¥	살때 1310.54 996.23	팔때 1265.46 961.97	1EUR 1397.18	살때 1397.18	팔때 1342.66
										1CNY	193.95	175.49

널뛰는 제주은행 주가... “매각설 황당”

신한금융지주 ‘인터넷은행 전환’ 소문에 신고가 경신 2년 전에도 매각설... 제주은행 “전혀 사실 아냐” 강조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인 제주은행 주가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전환 검토설에 널뛰기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제주은행과 신한금융지주는 21일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제주은행 주가는 21일 전일 대비 0.73% 상승한 1만3850원에 장을 마감하며 전일에 이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장중 한 때 전일 대비 10.91% 오른 1만525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같은 주가 급등은 지난 16일 한 언론에서 신한금융지주가 제주

은행의 인터넷전문은행 전환을 검토중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제주은행 지분 일부를 사들인다는 보도에 이날 종가는 전일 대비 25.0% 상승한 1만5000원으로 급등했다. 보도 직후 두나무와 신한금융지주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은행 주가의 급등이 지속되자 한국거래소는 20일 제주은행에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제주은행과 신한은행은 21일 오후 동시에 “제주은행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전환과 지분매각설로 인한 주가 급등

관련 보도와 관련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현재 시황변동과 관련, 공식규정상 중요한 공식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9월 20일에도 제주은행에 조회공시를 요구한 적이 있다. 5000~6000원대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이날 8820원으로 상승하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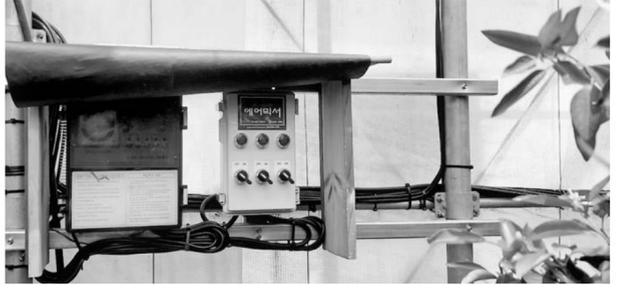
제주은행 매각설 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1월에도 네이버가 제주은행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에 한동안 출렁였던 적이 있다. 당시 제주은행은 해명 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유통주식 수가 적다 보니 주가 변동성도 크다”며 “금융위원회도 최근 제4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은 당분간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은행은 상장주 3212만 8000여주 중 신한금융지주가 보유한 75.3%와 제주은행우리스주 4.6%를 제외하면 유통주식은 전체 주식수의 20.1%에 그친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21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신한은행 점포는 제주에 3개 뿐이고, 나머지는 제주은행이 23개 지점과 6개 출장소에서 영업을 맡고 있다”며 “제주은행이 제주사회에서 갖는 위상과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을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설이 나와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이 아닌 그야말로 소문일 뿐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혁신 선도 제주농업기술원 (3) 열효율화 기술



농가 시설에 설치된 ‘열회수형 온습도 환기장치’. 제주도농업기술원 제공

에너지 효율 올리고 안정 생산까지

이상기후로 농가 부담 가중 시설 온도 보정해 피해 저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열효율화 기술로 시설 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정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큰 폭의 기상값을 보이면서 작물생산은 불안정하고 에너지 소비량은 늘고 있다. 이에 시설 내 온도보정을 통해 재배 안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고 있다.

제주농업기술원센터는 올해 사업비 1억 4040만원을 투입,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사업’으로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5개소) ▷열회수 온습도 환기장치(3개소)를 보급했다.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은 시설 내 온도를 감지해 바람 방향이 자동으로 위, 중간, 아래로 바뀌게 해 시설 내 온습도 분포를 고르게 한다. 기존 공기순환팬은 수평, 수직방향으로만 순환돼 시설 내 위아래 온도차가 고르지 않아 에너지 소비가 크다. 수평방향 순환팬은 위아래 온도차가 각각 1.3%, 8.4% 차이를 보였으나 풍향가변형은 0.6℃, 2.7%로 환경개선 효과가 있었고 에너지 5.0~8.8%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열회수형 온습도 환기장치’는 겨울철 습도 및 이산화탄소 등을

외부로 보내고 신선한 외기 공기를 시설 내로 유입하면서 열 교환 기능을 탑재해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환기 효과를 높이고 있다. 외부배출 열량 85% 회수로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고 잿빛곰팡이병 발생에 관행 16%에서 4.5%로 71.9% 감소 효과가 있다.

사업추진 결과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은 시설 내 온습도를 고르게 해 고온 장애 경감 효과가 뚜렷했다.

시설 만감류 등은 여름철 과실표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고온장애가 나타나는데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의 온도 보정으로 피해를 경감시켰다.

‘열회수 환기장치’는 외부배출 열량을 회수, 에너지 손실을 줄여 온풍기 연료소비량 대비 30% 절감 효과가 있었다. 열회수 환기장치는 겨울철 환기 시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실내로 바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유입된 찬 공기는 내부의 따뜻한 공기와 잘 혼합되도록 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부창훈 농촌지도사는 “이상기후로 안정생산이 위협받고 유튜브 상승으로 농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새 열효율화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 고대르기자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의 열효율화 기술로 시설 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정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큰 폭의 기상값을 보이면서 작물생산은 불안정하고 에너지 소비량은 늘고 있다. 이에 시설 내 온도보정을 통해 재배 안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고 있다.

제주농업기술원센터는 올해 사업비 1억 4040만원을 투입,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사업’으로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5개소) ▷열회수 온습도 환기장치(3개소)를 보급했다.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은 시설 내 온도를 감지해 바람 방향이 자동으로 위, 중간, 아래로 바뀌게 해 시설 내 온습도 분포를 고르게 한다. 기존 공기순환팬은 수평, 수직방향으로만 순환돼 시설 내 위아래 온도차가 고르지 않아 에너지 소비가 크다. 수평방향 순환팬은 위아래 온도차가 각각 1.3%, 8.4% 차이를 보였으나 풍향가변형은 0.6℃, 2.7%로 환경개선 효과가 있었고 에너지 5.0~8.8%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열회수형 온습도 환기장치’는 겨울철 습도 및 이산화탄소 등을

외부로 보내고 신선한 외기 공기를 시설 내로 유입하면서 열 교환 기능을 탑재해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환기 효과를 높이고 있다. 외부배출 열량 85% 회수로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고 잿빛곰팡이병 발생에 관행 16%에서 4.5%로 71.9% 감소 효과가 있다.

사업추진 결과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은 시설 내 온습도를 고르게 해 고온 장애 경감 효과가 뚜렷했다.

시설 만감류 등은 여름철 과실표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고온장애가 나타나는데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의 온도 보정으로 피해를 경감시켰다.

‘열회수 환기장치’는 외부배출 열량을 회수, 에너지 손실을 줄여 온풍기 연료소비량 대비 30% 절감 효과가 있었다. 열회수 환기장치는 겨울철 환기 시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실내로 바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유입된 찬 공기는 내부의 따뜻한 공기와 잘 혼합되도록 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부창훈 농촌지도사는 “이상기후로 안정생산이 위협받고 유튜브 상승으로 농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새 열효율화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 고대르기자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의 열효율화 기술로 시설 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정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큰 폭의 기상값을 보이면서 작물생산은 불안정하고 에너지 소비량은 늘고 있다. 이에 시설 내 온도보정을 통해 재배 안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고 있다.

제주농업기술원센터는 올해 사업비 1억 4040만원을 투입,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사업’으로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5개소) ▷열회수 온습도 환기장치(3개소)를 보급했다.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은 시설 내 온도를 감지해 바람 방향이 자동으로 위, 중간, 아래로 바뀌게 해 시설 내 온습도 분포를 고르게 한다. 기존 공기순환팬은 수평, 수직방향으로만 순환돼 시설 내 위아래 온도차가 고르지 않아 에너지 소비가 크다. 수평방향 순환팬은 위아래 온도차가 각각 1.3%, 8.4% 차이를 보였으나 풍향가변형은 0.6℃, 2.7%로 환경개선 효과가 있었고 에너지 5.0~8.8%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열회수형 온습도 환기장치’는 겨울철 습도 및 이산화탄소 등을

외부로 보내고 신선한 외기 공기를 시설 내로 유입하면서 열 교환 기능을 탑재해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환기 효과를 높이고 있다. 외부배출 열량 85% 회수로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고 잿빛곰팡이병 발생에 관행 16%에서 4.5%로 71.9% 감소 효과가 있다.

사업추진 결과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은 시설 내 온습도를 고르게 해 고온 장애 경감 효과가 뚜렷했다.

시설 만감류 등은 여름철 과실표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고온장애가 나타나는데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의 온도 보정으로 피해를 경감시켰다.

‘열회수 환기장치’는 외부배출 열량을 회수, 에너지 손실을 줄여 온풍기 연료소비량 대비 30% 절감 효과가 있었다. 열회수 환기장치는 겨울철 환기 시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실내로 바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유입된 찬 공기는 내부의 따뜻한 공기와 잘 혼합되도록 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부창훈 농촌지도사는 “이상기후로 안정생산이 위협받고 유튜브 상승으로 농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새 열효율화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 고대르기자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의 열효율화 기술로 시설 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정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큰 폭의 기상값을 보이면서 작물생산은 불안정하고 에너지 소비량은 늘고 있다. 이에 시설 내 온도보정을 통해 재배 안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고 있다.

제주농업기술원센터는 올해 사업비 1억 4040만원을 투입,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사업’으로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5개소) ▷열회수 온습도 환기장치(3개소)를 보급했다.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은 시설 내 온도를 감지해 바람 방향이 자동으로 위, 중간, 아래로 바뀌게 해 시설 내 온습도 분포를 고르게 한다. 기존 공기순환팬은 수평, 수직방향으로만 순환돼 시설 내 위아래 온도차가 고르지 않아 에너지 소비가 크다. 수평방향 순환팬은 위아래 온도차가 각각 1.3%, 8.4% 차이를 보였으나 풍향가변형은 0.6℃, 2.7%로 환경개선 효과가 있었고 에너지 5.0~8.8%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열회수형 온습도 환기장치’는 겨울철 습도 및 이산화탄소 등을

외부로 보내고 신선한 외기 공기를 시설 내로 유입하면서 열 교환 기능을 탑재해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환기 효과를 높이고 있다. 외부배출 열량 85% 회수로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고 잿빛곰팡이병 발생에 관행 16%에서 4.5%로 71.9% 감소 효과가 있다.

사업추진 결과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은 시설 내 온습도를 고르게 해 고온 장애 경감 효과가 뚜렷했다.

시설 만감류 등은 여름철 과실표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고온장애가 나타나는데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의 온도 보정으로 피해를 경감시켰다.

‘열회수 환기장치’는 외부배출 열량을 회수, 에너지 손실을 줄여 온풍기 연료소비량 대비 30% 절감 효과가 있었다. 열회수 환기장치는 겨울철 환기 시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실내로 바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유입된 찬 공기는 내부의 따뜻한 공기와 잘 혼합되도록 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부창훈 농촌지도사는 “이상기후로 안정생산이 위협받고 유튜브 상승으로 농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새 열효율화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 고대르기자

“깜깜이 조합장 선거... 표심 잡아라”

내년 3월 예정 선거 앞두고 위탁선거·필승전략 설명회 선거운동법 등 주의점 안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후보자만이 정해진 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위탁선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여러 후보들 중 자신만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선거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라일보사가 주최하고 VLS선거미디어컨설팅이 주관한 ‘조합장 선거 위탁선거법 안내 및 필승전략 설명회’가 21일 오후 한라일보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K&J법률사무소 김현식 대표변호사와 정준영 파트너 변호사는 2014년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과 두 차례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를 치르면서 쌓인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현식 변호사는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이 소수여서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이해 관계자의 관계성이 돈독해 인정과 의리를 존중하는 특성으로 과열 혼탁 가능성이 있고, 선거운동방법도 복잡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탁선거법의 선거운동 주체는 정해진 기간에 후보자에 한하며, 선거운동 기간 전에 보내는 문자메시지도 위법”이라며 “후보가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아파트단지 등에서 우편함에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나 이익제공 의사표시 행위, 당선이나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도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사봉투 헌금이라도 이름을 적어 넣으면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광혁 VLS선거미디어컨설팅 총괄본부장이 필승당선 전략을 소개했다. 유 본부장은 “조합장 선거는 나 혼자 잘해서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니고, 두 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조합원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선거법에 따른 선거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후보자가 난립 속에 뺨한 문구의 메시지



내년 3월 치러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선거 위탁선거법 안내 및 필승전략 설명회’가 21일 오후 한라일보 회의실에서 열렸다.

를 치르면서 쌓인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현식 변호사는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이 소수여서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이해 관계자의 관계성이 돈독해 인정과 의리를 존중하는 특성으로 과열 혼탁 가능성이 있고, 선거운동방법도 복잡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탁선거법의 선거운동 주체는 정해진 기간에 후보자에 한하며, 선거운동 기간 전에 보내는 문자메시지도 위법”이라며 “후보가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아파트단지 등에서 우편함에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나 이익제공 의사표시 행위, 당선이나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도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사봉투 헌금이라도 이름을 적어 넣으면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광혁 VLS선거미디어컨설팅 총괄본부장이 필승당선 전략을 소개했다. 유 본부장은 “조합장 선거는 나 혼자 잘해서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니고, 두 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조합원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선거법에 따른 선거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후보자가 난립 속에 뺨한 문구의 메시지

를 치르면서 쌓인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현식 변호사는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이 소수여서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이해 관계자의 관계성이 돈독해 인정과 의리를 존중하는 특성으로 과열 혼탁 가능성이 있고, 선거운동방법도 복잡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탁선거법의 선거운동 주체는 정해진 기간에 후보자에 한하며, 선거운동 기간 전에 보내는 문자메시지도 위법”이라며 “후보가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아파트단지 등에서 우편함에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나 이익제공 의사표시 행위, 당선이나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도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사봉투 헌금이라도 이름을 적어 넣으면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광혁 VLS선거미디어컨설팅 총괄본부장이 필승당선 전략을 소개했다. 유 본부장은 “조합장 선거는 나 혼자 잘해서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니고, 두 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조합원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선거법에 따른 선거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후보자가 난립 속에 뺨한 문구의 메시지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원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 향, 껍질 벗기기 쉬워 소비자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리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제라몬 향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견로 평가되는 품종.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만개)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만개)
하늘, 팔삭, 세이늘, 금굴,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론,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문의: 010-4736-2479)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점!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사전에약 주문생산 탕빛1호, 선경, 선봉미, 미니론,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농업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유라실생	5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원터프린스	3년생
감귤	3년생
진지향	3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옥), 황금향, 원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탕빛1호, 병유자, 아마나스, 레몬, 탕자(1년생 300원, 2년생 400원)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변이), 유라실생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본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근로변)

종자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